

Wide Eyes

이**

이 글이 국제적 경험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전하길 바라며, 진솔한 경험과 감동,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4가지 특별한 순간을 중심으로 얻은 성과들을 공유해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해외에서 좋은 경험 쌓아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Winnipeg에서의 '해외단기파견'을 선택했었죠. 새로운 곳에서 뭐가 나 를 맞이 할까,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여러분 은 국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나요?

* * *

저의 국제 프로그램의 시작은 다른 이들보다 많이 독특하고 힘든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경유지에서 항공사가 제 캐리어를 분실 했기 때문이죠. 경유지마다 캐리어가 잘 오고 있는지 확인했었지만 전부 의미 없었고 결국 저는 최종 목적지 Winnipeg에 빈손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캐리어를 찾기 위해 노력한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첫째로 **영어 구두 소통**, 그 리고 둘째로 **영문서 작성**입니다. 약 한 달 동안 해외 항공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었 습니다. 출국 전까지는 영어로 소통한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내 말 을 기다려주고 천천히 말해주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고 가혹했습니 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들의 항공업무 언어와 표현을 실 시간으로 습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눈 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문서로도 수없이 소통했습니다. 영어로 문서를 작성한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항공사에서 캐리어 분실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작성했습 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지금은 영어로 문서 작성이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큰 도전이었지만, 이를 통해 ①문제 대처 관련 영어 어휘 능력 ②비즈니스적 국제적 소통능력이 급상승한, 즉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때로는 기대가 실망이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국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의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캐리어 분실시 대처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 작성해뒀습니다. 혹시나 캐리어를 나중에 분실하게 된다면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liam_lee_/223198851611)



AIR CANADA Let Us Know

Thank you for contacting Air Canada. Do not complete the form if you would like to change your booking. You must do so via your original point of purchase. For more information, click [Change my booking](#) on the tile below.

General Concerns	Flight Delay or Cancellation Claim	Compliment
Accessibility Concerns	Change my booking	Refund Request
Baggage Issues	Track My Bag	Baggage Fee Refund
Air Canada Gift Card	Flight Pass Product	Request Insurance Letter

Regarding: **Baggage** Issue: **Submit Expenses**

* * *

이제 숨막히는 이야기는 끝내고 밝은 이야기들로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7월 한달 간 University of Winnipeg에서 오전은 기본영어 수업, 오후는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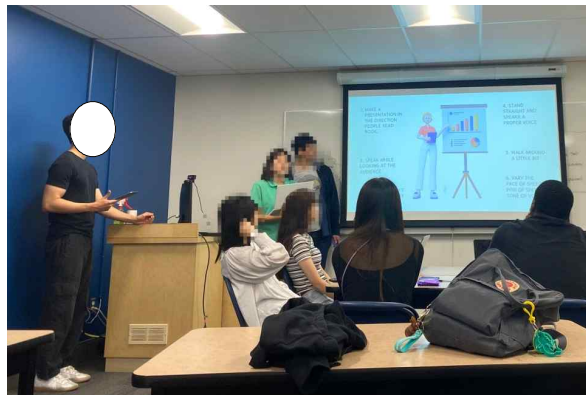
첫 번째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한 주요 원칙 중 하나는 "You don't need to be perfect. Let's just do it." 즉, 완벽할 필요 없이 일단 시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저에게만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고 싶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Speaking에서는 Writing과 달리 완벽한 문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전공이 영어영문이었고 문법이 취약했기 때문에 말할 때 오류를 피하기 위해 중단하고 어떻게 말해야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될지 고민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완벽함을 포기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픽게 스피킹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매 수업에서는 새로운 주제나 표현을 배우고 이를 파트너와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르침을 익힌 후로는 주변의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템포가 높아지고, 대화 중간에 공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은 서로의 성장을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얻었고, 그 결과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상승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생각합니다. 매주 약 2번의 발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발표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업 방식이 저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자신의 의견이나 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영어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에 부가적으로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표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었기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 *

7월 수업 종료 후 각 참여자는 원하는 기관의 우선순위를 매겨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관에 배치됩니다.

저는 8월 동안에는 비영리 단체인 Art City에서 한 달간의 인턴십을 수행했습니다. Art City는 세계적인 예술가인 Wanda Koop이 설립한 단체로, Winnipeg 지역의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지 인터뷰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나 Art City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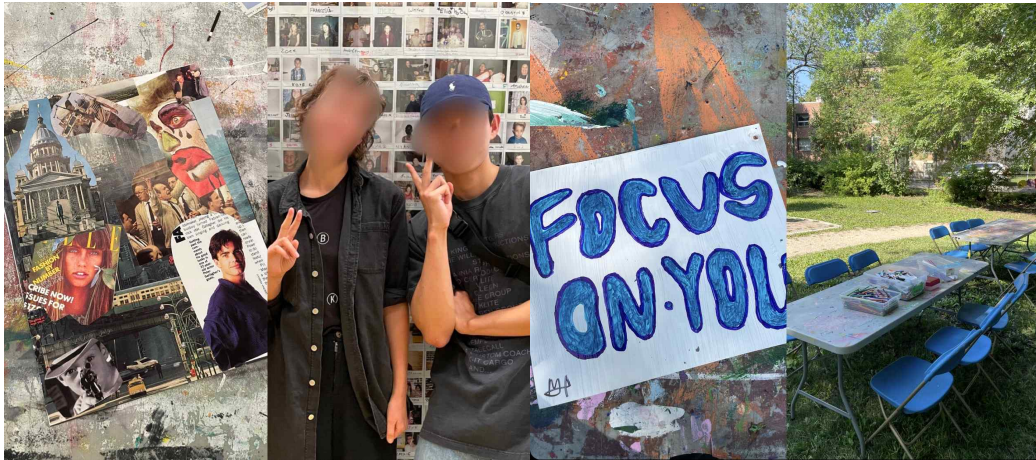
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필요한 소품들은 모두 기부를 통해 확보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훌륭한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차해서 무언가를 배울 시간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턴십이 끝나갈 때쯤에는 업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연령별로 다른 영어 표현과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동년배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주를 이뤘으나, 인턴십 동안 기관 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는 표현과 어휘를 널리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직원들의 다양한 연령대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5세부터 성인까지의 폭넓은 연령 스펙트럼은 흥미로운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영어로 대화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 주저하며 말을 걸기를 꺼려했지만, 성장의 기회로서 각 시간을 살려내기 위해 매일 먼저 대화를 시작하며 업무적인 내용부터 생활 속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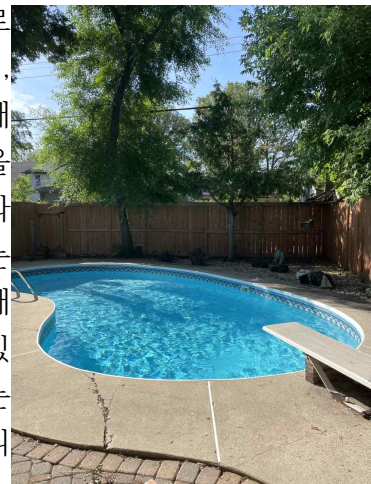
둘째로, 다양한 국가의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은 한국과 비교할 때 수평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직위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도중 직원들은 편안하게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였으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상사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저를 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저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괜찮다면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Sir/Ma'am 또는 Mr./Mrs. 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호도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간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첫 만남부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곧장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지금까지는 주로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해외에서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경험들일 것입니다.

먼저,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동안 참여자들은 홈스테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University of Winnipeg 담당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호스트와 집을 선정해준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제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도 괜찮고 활동적이며 예술적인 측면을 즐기는 등의 선호사항을 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매칭된 호스트와의 집은 제 선호도를 90% 이상 반영하고 있었는데, 수영장이 있는 뒷마당, 반려동물 Bella와 함께하는 집에서 호스트의 화가로서의 면모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이전 참가자의 경험을 통해 홈스테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수도세가 높다는 점으로 인해 호스트들이 샤워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전 요청에 따라 샤워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해 주셨기에, 이 역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홈스테이 사전 조사 시 샤워와 관련된 특별한 요청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Multicultural)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저의 친구들의 호스트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필리핀 출신 호스트의 경우 음식 문화에서 나타난 차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음식을 중시하여 채소와 과일을 주로 즐겨 먹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Winnipeg은 캐나다의 다른 도시보다 원주민 문화가 풍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7월과 8월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서는 원주민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어, 그들의 전통 문화, 언어, 의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경험이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도시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Multicultural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Winnipeg에서 개최되는 'World Police and Firefighter Games'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모여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펼치는 행사로, 한국도 참가국 중 하나로 참석하여 뜻깊은 경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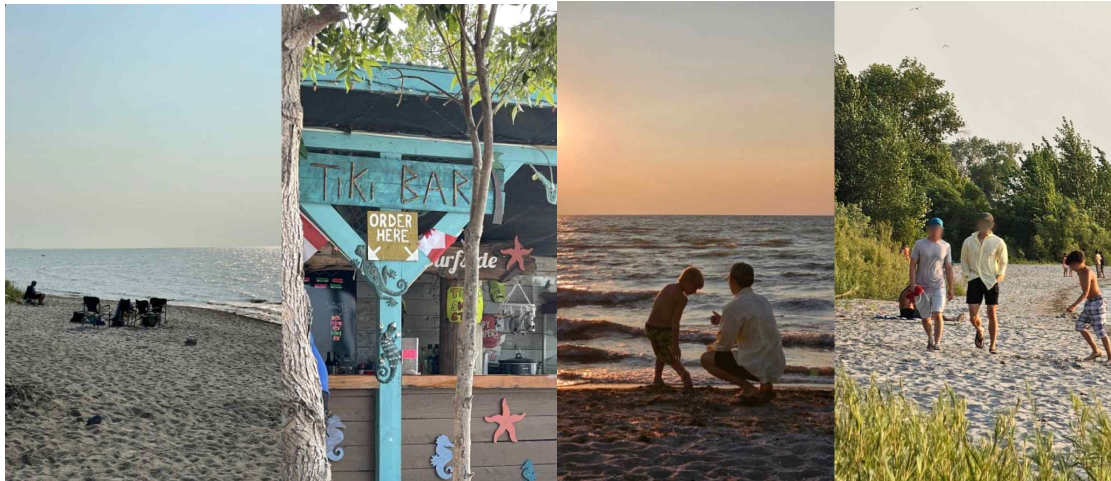
친구들끼리 홈파티를 할 때마저도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외국에서 파티를 할 때는 각자 공유할 수 있는 혹은 본인이 마실 술을 챙겨오는 것이 하나의 '매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치만 대부분이 한국인과 일본인이어서 첫 홈파티때 이를 모르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술이 많이 부족했던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인에선 젤리를 도수가 높은 술에 담궈 이를 얼려 먹는 알코올 젤리가 술자리의 안주라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이처럼, 한 도시에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는 경험은 보다 의미있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개방적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는 경험은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세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지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의 홈스테이 집에 가끔 놀러 갔었는데 어느 날 다같이 Beach로 놀러 가지 않겠냐며 저를 초대 해줬습니다. 캐나다는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까지 가기에 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근처에 거대한 호수(Lake)가 있는 편입니다. 이 호수들은 너

무 커서 현지인 분들은 이를 Beac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t. Ambrose Beach까지 호스트 패밀리의 10살 아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아이 부모님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갔었습니다. 도착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한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친구의 호스트 패밀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들도 많이 와서 서양의 가족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나이의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전 한국만 유독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세계 모든 국가의 청년들은 같은 고민을 하며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추억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학업과 미래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던 한국에서의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파도, 바람, 모래, 아이들의 웃는 소리, 어른들의 술 한잔 기울이며 대화하는 소리 등 놓치고 있던 현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갈 생각으로 시작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의 현실을 마주할 힘을 얻어갈 수 있어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 *

Tip

- ①저가 항공사는 되도록 피하기 (딜레이, 수화물 이슈)
- ②티켓은 최소 한달 반 전에 구매하기
- ③먼저 대화하려고 시도하기
- ④이메일 자주 확인하기
- ⑤옷은 아울렛이 가장 저렴
- ⑥e-sim 사용하기

* * *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으셨을 때 저는 마치 사전에 다수의 목표를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얻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해외에서 지내다 돌아올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었는데 이번 또한 제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캐나다로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의 제목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는 저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실력 향상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삼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